



금석문 자료와 한국고대사

| | |
|--------------------|---|
| 저자 (Authors) | 주보돈 |
| 출처 (Source) | 한국사 시민강좌 49 , 2011.8, 234-246(13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일조각 ILCHOKAK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05522 |
| APA Style | 주보돈 (2011). 금석문 자료와 한국고대사. 한국사 시민강좌, 49, 234-246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11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금석문 자료와 한국고대사

주보돈

1. 새로운 사료
2. 금석문과의 첫 인연
3. 적성비의 충격과 후유증
4. 새로운 금석문을 찾아서
5. 또 다른 새 자료—목간

1. 새로운 사료

역사학은 모름지기 기록을 매개로 삼아 과거 인간의 삶과 관련한 진실 추구를 본령으로 하는 학문이다. 역사학에서 다루는 기록을 흔히 사료史料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역사를 복원하면서 사료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란 허구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껏 남아 있는 사료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순금이라도 불순물이 끼어들어 순도純度에서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남겼느냐에 따라 지니는

朱甫暉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저서로는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신서원, 1998), 『금석문과 신라사』(지식산업사, 2002)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포항 중성리비에 대한 연구 전망」(『한국고대사연구』 59, 2010), 「삼국유사 열불사조의 음미」(『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1, 2010), 「신라 골품제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과제」(『한국고대사연구』 54, 2009) 등이 있다.

무계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다 같이 사료라고 불리더라도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지는 않으며 굳이 등급을 매기고자 하는 것이다.

당대에 곧바로 남겨진 기록이 가장 기본적이며 일차적인 사료가 되겠다. 물론 당대의 사료라고 하여 언제나 그 순도가 반드시 100퍼센트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기록으로 남겨질 바로 그때부터 어떤 특정한 목적의식이 깊숙이 개입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의 비문이라도 반드시 일어났던 사실 그대로 기술된 것은 아니다. 비를 세웠던 일차적 목적이 광개토왕이 세운 훈적勳績을 과시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만큼 당시에 일어났던 전투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오로지 승리한 사실만을 가려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정해진 어떤 기준에 따라 쓴 것이므로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 스며들기도 한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면 당대의 기록이라고 하여 무조건 실제 그대로라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자명하다. 하물며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다시 특정한 목적 아래 거듭 정리, 재정리의 과정을 거치고서 남겨진 사료라면 그 내용이 어떨지는 새삼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이처럼 현재 남겨진 기존의 사료 속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안팎의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실상과는 다른 내용이 저절로 끼어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옥석玉石은 물론이고 옥 가운데 스며들어난 티瑕疵를 또다시 가려내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과정을 총칭하여 사료비판史料批判이라고 한다. 한때 크게 논란이 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필사본 『화랑세기』를 역사학계가 위서僞書라는 진단을 내린 것도 그와 같은 엄정한 사료비판의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결과였다. 그렇지 않다면 빈약한 사료에 마냥 허덕이고 있는 한국고대사 분야로서는 마치 황금어장처럼 여겨지는 자료를 굳이 위서라고 배척할 이유가 따로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진실에 한결 더 다가가기 위

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 아는 것처럼 한국고대사는 관련 사료가 매우 희소한 분야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언제나 당대에 쓰인 자료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따금씩 그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이렇다 할 굵직한 자료들이 출현한다. 예컨대 돌이나 금속류에 새겨진 금석문, 나무나 대나무에 쓰인 이른바 목간木簡과 같은 사례들이다. 이들 자료가 때때로 출현하여 연구자들의 오랜 목마름을 해갈解渴시켜 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가 출현한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논란거리가 다시 또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진실에 이르는 길은 어찌면 험난한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아래에서는 한국고대사 분야에서 새로 출현한 사료들과 그를 발판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 금석문과의 첫 인연

필자가 금석문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석사 학위 청구논문을 준비하면서였다. 당시 신라 중고기中古期(514~653)의 지방통치와 촌락이라는 논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 초점은 당연하게도 지방통치보다는 촌락에 맞추어졌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사료가 너무나 빈약하여 오히려 지방통치 조직이나 방식을 통하여 촌락의 존재양상을 추적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다. 당시 삼국 가운데 가장 후발주자였던 신라가 마침내 삼국통합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아마도 지방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룬 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추측하던 중이었다.

그때 먼저 눈길이 닿은 것이 561년에 건립된 창녕진흥왕비였다. 거기에는 진흥왕 당대 최고위직에 있던 유력자들의 이름이 거의 망라되다시피 하여 주목을 크게 받았거니와 필자에게는 특히 ‘군주당주도사여외촌주軍主幢主道使與外村主’라는 구절이 각별히 크게 다가왔다. ‘군주’와 ‘당주’ 및 ‘(외)촌주’라는 직명은 이미 『삼국사기』에도 보이지만 ‘도사’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물론 591년 건립된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에는 지방의 성촌城村 단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서의 ‘도사’란 존재가 적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지방통치조직이나 체계는 그리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당주’가 기존 사서史書에서는 ‘군관軍官’으로서만 보일 뿐 지방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군주·당주·도사의 상호 관계는 과연 어떠한이었을까, 지방의 유력자인 ‘촌주’는 그런 구조 속에 어떤 위치에 놓였을까 등등이 매우 궁금하였다. 그를 추적해가면서 결국 기존 사서는 너무 불완전하며 따라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에는 먼저 당대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기에 이르렀다.

그 문제의 구절을 놓고 한창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즈음인 1978년 1월 충북 단양에서 당시로서는 신라 최고最古의 비라 할 적성비赤城碑 출현이라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때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비문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고서는 너무도 흥분감이 벅차오던 장면이 아련히 떠오른다. 거기에는 필시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지도 모를 실마리인 ‘군주’와 ‘당주’라는 직명이 함께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치솟았던 것은 그 이전에 별로 가져보지 못한 느낌으로 말로 형언形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사막을 걷다가 목이 너무 타서 곧 죽을 것만 같은 최악의 순간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적절한 때에 맞추어 적성비가 출현해줌으로써 이후 작업은 순풍에 돛

을 단 듯이 매우 쉽게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 완벽하지는 못하였지만 아쉬운 대로 학계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이때 맺은 적성비와의 첫 인연은 그 뒤에도 한동안 이어졌다. 어떤 연유로 그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다.

3. 적성비의 충격과 후유증

그런데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성비를 본격적으로 다룬 일본 동경대학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교수의 논문을 접하고서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우리 학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냥 지나쳐버린 중대한 실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필자로 하여금 적성비에 그대로 매달리게 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제 다시금 적성비 전체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의 발견 주체였던 단국대학교 박물관은 적성비를 본격적으로 다룬 학술 회의를 열기에 앞서 현장을 발굴하여 전체 20여 자에 달하는 문자가 있는 10여 점의 비편(碑片)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가운데 ‘성재(城在, 아간(阿干)’이라는 2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비편은 각별히 주목해볼 만한 대상이었다. 다케다 교수는 치밀한 검토 작업을 통하여 그것이 5행과 6행의 첫머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높은 안목과 함께 꾸준한 노력이 일구어낸 성과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갖 억측으로 한창 논란이 일던 중요한 문제가 일시에 풀리게 된 것이다. 3행의 말미는 고두림(高頭林)이라는 단어로 끝나는데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를 둘러싸고서 견해가 엇갈려 있는 상태였다. 대체로 그 단어는 사람 이름으로서 원래 고구려인이었다가 신라로 귀화한 인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4행의 첫 머리가 ‘성재’라면 다음

문장과 이어져 ‘고두립성재군주’(‘고두립성에 있는 군주’라는 뜻)가 되어 고두립은 저절로 군주라는 직명에 붙은 지명이 된다. 이후 그에 대한 반론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면 정설로 확정되었다고 하겠다. 이 실착은 당시 우리 학계의 실상과 수준을 그대로 엿보게 한 대목이다.

당시 필자는 다케다 교수의 논문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밑에서부터 치밀어오는 참담함과 착잡함을 쉬이 떨쳐내기 어려웠다. 과연 우리 학계는 왜 이다지도 부족한가, 정말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던 필자에게는 커다란 교훈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앞으로는 비문의 글자 하나라도 결코 소홀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우蠢를 범하는 일이 절대 없으리라 내심 굳게 다짐하였다.¹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해 동안에 걸쳐 적성비를 놓고 씨름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활용되지 않고 남아 있던 여러 비편들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시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석문釋文을 작성하는 데 고심하였다. 그러는 한편 전체 내용도 분석하고 논란되던 비를 세운 연대를 밝혀내려는 데 힘을 쏟기도 하였다. 그 결과를 1984년 논문으로 발표하였다.²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금석문을 면밀히 따져보는 습성이 저절로 몸에 밴 것 같다. 그동안 주로 석문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여겨지는 비문을 대상으로 어떤 의문도 던지지 않고 오로지 활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지 세밀하게 관독하고 동시에 구조를 낱낱이 따지는 작업을 소홀히 한 데 대한 나름의 반성도 뒤따랐다.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인 1987년에 이르러서 한국고대연구회(한국고

1 그러나 최근 울진봉평리신라비에서 발견 후 20년 만에 새로운 글자가 확인되어 소동이 또 벌어졌다. 제1행 말미에 ‘오五’란 글자가 상당히 선명하게 있었음에도 읽지를 못하였던 것이다. 수많은 연구자가 관찰하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하튼 연구자들의 부주의가 여전한 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 주보돈, 「단양신라적성비의 재검토—비문의 복원과 분석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7, 1984.

대사학회의 원래 명칭)란 학회가 출범하자 금석문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판독하고 분석하여 그 대강을 당시 발간되던 회보에 꾸준히 실었던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작용하였다.

그러면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끄럽고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 문득 하나 떠오른다. 적성비 관련 논문을 발표하면서 당연히 시도했어야 할 비편 조사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일이었다. 적성비 관련 논문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젠가는 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인가 표현하기 어려운 찝찝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일이 너무 지나게 되자 이제는 그 자체를 거의 완전히 잊고 지내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수년 전 한국목간학회의 이사회 석상에서 우연히 적성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라도 나서서 필자가 하지 못한 작업을 이어서 꼭 해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장 그 자리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사람이 동국대학교의 윤선태 교수였다. 평소 당대의 일차 사료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그는 단국대학교 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비편 조사에 나섰다. 마침내 비편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2010년 8월 목간학회 주최의 하계세미나에서 그중 일부를 보고하였다. 비편에서 ‘찬撰’으로 읽을 여지가 보이는 글자를 새로 찾아내고 나아가 그 글자가 들어갈 만한 자리까지 확보하는 개가凱歌를 올린 것이었다. 만일 그 추론이 성립된다면 적성비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는 셈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찌면 적성비 자체를 전반적으로 새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느낌이었다. 조만간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해본다. 여하튼 그 일은 조그마한 글자 하나라도 결코 소홀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4. 새로운 금석문을 찾아서

앞으로는 금석문을 꼼꼼히 살펴 절대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고서 적성비를 검토하기 시작한 뒤 언뜻 새로이 포착된 금석문이 있었다. 1976년 안압지 발굴을 통하여 처음 알려진 20여 자 남짓의 글자가 남은 비편이었다. 이는 원래 안압지의 호안석축湖岸石築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발견 당시 그것은 여러 남산신성비 가운데 하나로서 제7비란 이름을 달고서 소개되어 널리 받아들여지던 상황이었다. 그 이전에도 그 자료를 접촉한 적은 있으나 거기에 내재된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새로운 시각과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자 금방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른바 안압지출토비는 기존의 남산신성비와 비슷한 문장구조였지만 기재방식에서 차이가 나고 외형 또한 분명히 달랐다. 게다가 모든 남산신성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서사誓事 부분이 없었다. 그것은 앞부분이 떨어져나가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부 외위外位 관등의 표기 방식은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비는 남산신성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비밀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그 점을 밝혀내기 위하여 안압지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거기에는 안압지의 호안석축에 사용된 돌들을 대상으로 지질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그 원산지가 명활산성明活山城 방면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를 일차적인 근거로 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명활산성의 축조와 관련된 기사를 추적해보았다. 그리하여 진흥왕 15년(554) 명활산성을 수축修築하였다는

기사를 찾아내었다.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안압지출토비는 바로 그때에 명
활산성 축조를 위해 전국적인 역역동원을 하고 난 뒤 세워졌다고 보아 잠정
적으로 명활산성비라고 명명해두었다. 아마도 남산신성비의 시원을 이루는
것으로 장차 같이 세워진 여러 개의 비가 출토되리라고 예측하였다.

당시 안압지보고서를 점검하면서 너무도 놀란 것은 비편과 관련하여서는
단 한 줄의 내용도 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오직 도판 부분에서 아무런 설
명도 없이 겨우 사진 한 장만을 달랑 올려놓고 있을 따름이었다. 혹여 주변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더라면 같은 비의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동시에 건립된 다
른 비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안압지의 발
굴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오래도록 회자되었는데 문제의 비
편을 취급한 자세만으로도 당시 발굴이 어떠하였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
었다. 전반적인 경향이나 수준이 그러하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시점
에서 돌이켜보면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셈이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1985년 안동대학교에서 열렸던 대구사학회의 정기학
술회의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³ 토론자로 나섰던 당시 영남대학교 이종욱 교
수는 여전히 그 비편이 남산신성비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입장에
서 명활산성비를 실제로 발견하여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는 역지였지만 나도 즉시 맞받아서 앞으로 정말 그러마
고 공개적으로 답변하였다. 그 뒤 필자는 무모하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혼
자서 새로운 명활산성비를 찾아 나섰다. 성벽이 붕괴되어 산더미처럼 쌓이고
흩어져 있는 현장에 가서 혹시 비가 나오지나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이곳저곳
을 훑고 다녔다. 그러나 워낙 돌의 수량이 많은 탓에 전면적인 발굴 작업을 진

3 주보돈, 「안압지출토 비편에 대한 일고찰」, 『대구사학』 27, 1985.

행하지 않는 한 도무지 기대안망한 일로 여겼다. 몇 차례 조사를 하다가 먼 장래에 발굴을 통하여 출토되리라 막연히 희망하면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가. 그로부터 3년쯤 세월이 흐른 뒤에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1988년 8월 말 경주 지역에서 큰 홍수가 났는데 당시 명활산성의 북문이 자리한 곳의 잔존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위로부터 흘러내린 물에 휩쓸린 성돌들이 성 밖 계곡의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널렸다. 때마침 그곳을 경작하던 포도밭의 주인이 지나다가 우연히 글자가 있는 비석을 발견하여 경주박물관에 정식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약 그때 글자가 적힌 쪽이 윗면으로 놓이지 않았더라면 자칫 영구히 빛을 보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천우신조라고나 할까.

필자는 때마침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그해 초에 발견된 신라 최고의 비인 울진봉평신라비의 모형을 뜨는 작업을 한다고 하여 거기에 참관하였다가 새로운 비의 발견 소식을 접하였다. 대구로 내려오자마자 다음 날 당장 경주 박물관으로 달려가 비문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비석의 외형이나 문장상의 구조 및 표기 방식 등이 안압지출토비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때의 환희를 어찌 말로 표현하겠는가. 이로써 안압지출토비가 여러 개의 명활산성비(내용에 입각하여 작성비라고 명명됨) 가운데 하나임이 뚜렷하게 증명된 것이다. 안압지출토비는 명활산성비라는 정식의 새 이름을 갖기에 이르렀다. 다만 원래 관련 기사에 근거하여 554년일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새로 발견된 비문에 ‘신미辛未’라는 간지가 보여 551년임으로 확인됨으로써 연대가 일치하지 않았다. 『삼국사기』에 별다른 오류가 개재되지 않았다면 명활산성은 551년에 축성 작업을 시작하여 554년에 이르러 끝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다면 『삼국사기』의 기년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자체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여하튼 이로써 6세기의 일정한 기간 동안 왕경의 토목건축사업에는 전국의 지방민이 동원되어 진행되었다는 사례를 또 하나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 지방을 지배하는 방식과도 연관된 일이라 여겨진다. 이미 6세기에 지방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역역동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지방지배가 강화되고 있었다. 그것을 통하여 다시 지방에 대한 지배를 더욱 조직화해갔을 것이다.

5. 또 다른 새 자료—목간

1988년은 정말 뜻깊은 해였다. 그해 봄, 마치 한국고대사연구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라도 하듯 울진봉평신라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듬해에는 봉평비보다 20여 년 앞서는 503년에 건립된 영일맹수리신라비가 출현하였다. 신라 최고의 비라는 지위는 또 다시 경신되었다. 여하튼 한국고대사 특히 신라사方面에는 큰 경사가 이어졌던 셈이다. 이들 비문 속에는 기존의 사서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 신라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함이 대단히 컸다. 신라사 연구가 아연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1990년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二聖山城 내부의 연못에서 목간 출현의 소식이 전해졌다. 잇달아 1991년부터는 경남 함안의 성산산성城山山城에서 목간이 연차적으로 출토되기 시작하였다. 마치 비문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바야흐로 목간의 시대가 도래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 이전 1970년대 중반 안압지에서 다수의 목간이 출현함으로써 바야흐로 한반도에서도 목간시대가 열리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이 예고되던 참이

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약간씩 발견되던 목간이 1990년대에는 집중적으로 출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된 것은 성산산성 출토의 목간이었다. 그 뒤 최근에 이르기까지 도합 수십 차례의 발굴이 이어졌고 그 결과 삼백 수십 점의 목간이 나왔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출토된 목간 육백 여 점의 반 이상에 이르는 수량이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처럼 성산산성은 목간의 수량에서 단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원래 성산산성은 오래도록 가야의 산성일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그런데 목간의 출현으로 신라가 축조한 성이라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이는 문자 자료가 차지하는 힘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일대사건이었다. 만약 목간이 출토되지 않았다면 성산산성은 영구히 가야가 축조한 산성으로 잘못 여겨졌을 터이다. 한편 내용 분석을 통하여 목간이 작성된 연대가 560년 무렵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큰 성과였다. 바로 그 시점에서 축성된 사실이 저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목간이 출토되는 일정한 층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발굴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증명해보였다. 여하튼 목간 출현으로 고고학이 문헌사학과는 뿔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주었다.

목간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성산산성 축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 일대의 주민이 동원되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설치된 상주^{上州} 관할하의 지역들이다. 하주^{下州}나 혹은 신주^{新州} 지역의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다른 구역을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역할을 맡았을 수도 있겠다. 여하튼 새로이 영토로 편입된 지역에 축성하면서도 인근의 주민이 아니라 전국적인 동원을 통하여 축성한 점은 앞서 본 명활산성이나 남산신성의 축조와 비슷한 면모이다. 앞으로 그런 시각에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런데 각별히 주목할 것은 성산산성에서 목간이 대량으로 출토된 것을 계기로 한국목간학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미 1999년 한국고대사학회는 최초로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대상으로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그 뒤 성산산성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목간자료가 계속 출토되면서 그를 전적으로 취급할 학회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필자는 몇몇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2006년부터 학회 결성 작업을 시작하여 2007년 1월 마침내 정식으로 기치를 내걸었다.

한국목간학회는 학제적學際的·국제적國際的 지향성을 표방하고서 출발하였다. 문자를 매개로 여러 학문 분야가 참여하고 나아가 안목을 넓혀 문자문화의 확산과 교류실태를 국제적으로 밝혀보자는 생각에서이다. 따라서 그것이 설정한 목표대로 정착되기만 한다면 장차 한국고대사에도 새로운 장이 크게 열리리라 확신한다.